

이 있었어요. 그래서 94년부터 연화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손 법사는 그때부터 삶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연화활동에 두었다. 직장생활을 할 때 저녁이면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다반사였고, 심지어 장지가 멀리 있으면 새벽에 집을 나서 밤늦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던 시기여서 어려움은 더했다. 유족들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아 상갓집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럴 때 마다 힘이 된 것은 사명감과 신심이었다.

“옛날에는 전화가와서 가면 쫓아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유족들 중 한 분은 사찰에 다니고, 다른 한 분은 교회에 다니거나 불자가 아닌 경우인 거죠. 어쩔 때는 발인 바로 직전에 유족들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늦게라도 급하게나마 가서 염불을 해드리면 돌아가신 분들이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기꺼이 독경하고 염불하게 됩니다.”

주변의 시선, 정성으로 바뀌다

이런 그의 신심과 열정은 1997년 회사를 그만둔 이후로 더욱 깊어졌다. IMF의 바람이 불어오던 그때 연화활동은 그의 삶에 하나의 힘이 되었다.

“그때 당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십 수 년 다닌 직장에서 나오고 하니 생활에 대한 걱정부터 앞서더군요. 작은 회사로 옮기긴 했지만, 봉급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연화활동을 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고,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건강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됐어요. 반대로 제가 치유 받았다고 할까요.”

이런 손 법사의 활동은 매일 상갓집에 간다는 주변의 안 좋은 시선도 바뀌었다.

“처가 쪽이 안동의 유교집안입니다. 저에게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조금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매일 같이 상갓집에 다니니 말이죠. 그러다가 96년에 장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직접 법복 입고 염불 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처가 집안 어른들이 눈여겨 보셨나봐요. ‘자신도 죽으면 와서 염불해달라’고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종교를 떠나, 고인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어디에나 같다고 생각해요. 그 것이 계기가 돼 그 지역에 사는 동서도 이제는 절에 다니며 그 지역에서 연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손 법사의 가족들도 모두 사찰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부인은 불광사의 봉은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각종 재일이나, 초파일 때나 과일도 놓고, 허드렛일도 하고 하는 노력봉사입니다. 주말이면 함께 안국동노인복지회관에도 나가요. 아들들이 두 명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사찰에 오다보니 이제는 저보다 더 열심히 봉사자들이 됐습니다. 염불봉사를 하고부터는 집안이 크게 잘되는 것은 없을지라도 나쁜 일이 없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은한 향이 피어나듯이, 집안에 큰 탈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활 속 불교신행이 곧 전법

연화법사의 일은 의식뿐만 아니라 장례절차 상담도 함께 한다. 요즘은 장례가 대부분 병원에서 이뤄지고 상조회 문화가 정착돼 상담이 많이 줄었지만 장례를 마치고 사찰에서 재를 지내는 등 여전히 많은 상담이 이뤄진다. 망자의 첫 기일을 어떻게 보낼지, 유품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등이다. 그러다 보면 불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법활동도 이뤄진다.

손 법사는 “사실 이웃종교계에서 이런 활동이 활발하다. 상장례를 통해 종교를 본격적으로 접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손 법사는 이어 “신도회나 지역모임이 구성된 도심에서는 그나마 불교계의 상조가 활발하지만 시



손기원 연화법사는 ...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연화부원으로 활동하다, 2005년 연화법사로 부촉받았다. 단순히 염불봉사 외에도 손 법사는 49세 등 장례절차 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업무도 맡고 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손 법사는 봉사를 통해 자신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골에서는 사찰의 스님들이 일일이 신경 쓸 수 없다보니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손 법사는 하지만 마음을 다하면 무엇이든 이뤄진다고 말했다.

“모든 것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이란 것은 하나를 해도 정성을 다하면 다른 일도 잘 풀리잖아요. 전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연화활동 등 한 분야에 정성을 쏟으면 그것이 결국 전체적으로 전법이 활성화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로

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 법사는 그렇기 때문에 힘들는데 까지 연화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그동안 염불한 분들이 수천 명은 되는 듯해요. 언젠가 저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분들이 극락에서 저를 환영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 집니다. 제게 염불할 수 있는 힘이 있는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무국적 아이들 보호대책 필요

하루에도 수많은 인연과 만나고 헤어진다. 나에게 특별한 만남을 말하려면 당연히 새 생명과 눈을 맞출 때이다. 그리고 가장 아픈 이별을 떠올려보면 이 아이들이 국내에서 자라지 못하고 연락없어 어느 새 사라지는 때이다.

6년 전 탄시르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엄마 친구의 품에 안겨 인도네시아로 출국해야 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부부가 공장에서 월급을 제 때 받지 못한다던데 었 친 데 났친 격으로 노동비자를 연장 받지 못해 미등록 노동자가 되었다. 사실 이들은 불법노동자가 아니다.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의미가 포함된 불법이란 용어보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서 행정 기관으로부터 비자를 연장받지 못한 미등록 노동자로 불려도 될 것이다.

세상이 모두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것처럼 탄시르 엄마와 아빠는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서울까지 올라갈 시간도 경비도 여의치 않았다. 이렇듯 이주 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국적 아동이 되어 보호 혜택도 못 받고, 성장한 뒤에도 일반 아동 처럼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원칙대로라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게서 태어난 탄시르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되지만 탄시르 아이의 출생을 신고한다는 건 다른 한편 출국을 의미했다. “스님, 우리 아기 인도네시아 가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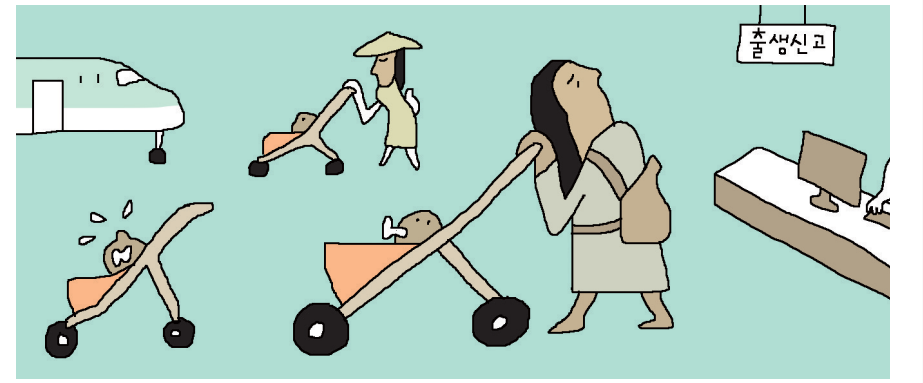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탄시르 엄마, 스틸라 같은 나라 출신인 아빠와 사랑을 나누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딸이 태어났다. 기왕이면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생각하고 출산을 결심했지만 출산을 앞두고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구미 외국인센터로 왔다. 나는 탄시르가 태어난 1주일 뒤에 첫 인사를 했다. 강보에 싸인 작고 부드러운 생명을 바라보며 슬퍼할 사람들도 조금은 흥분된 기분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다. “슬라맛야! 슬라맛야!”

축복을 받는 동시에 걱정이 생겼다. 엄마와 아빠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까닭에 탄시르는 태어나자마자 무국적 아동이 된다. 우리나라 국적법에 의하면 부모는 모 중에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가 한국 국적이 되기 때문에 탄시르는 인도네시아에 등록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받아주질 않는 미등록 아동이 되는 것이다.

스티라와 인도네시아 남편은 한국으로 일하러 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약 2천만원의 돈을 지불하였었다. 물론 몇 년만 고생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거란 생각으로 한국에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갖춰 집에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형편이 아니

었다. “아기 키우기 어려워요.” 애절한 표정으로 이야기 하는 스틸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웠다. 아이들은 그 존재 하나만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로 왔다. 그 이유만으로도 축복 받아 마땅하지만 부모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이 축복이 아닌 또 다른 비난의 이유가 되었다.

이 아이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오늘도 센터에 들고나는 이주 노동자들을 보니 절반 이상이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다. 결혼과 출산, 양육, 의료 등 제도적 마련이 이뤄지면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건강한 청년들이다. 아이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인재로 키워야 한다. 복지의 혜택 속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우리 국력의 힘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적법을 개정해 무국적 아이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김영로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문사 주주)

우리 시대 왜 염불이 필요한가? 왜 염불 수행을 해야만 하는가?

선화상인 염불 법문

서방 극락이 그대의 집

■ 정원규 · 이정희 옮김 | 변형 신국판 288쪽 | 12,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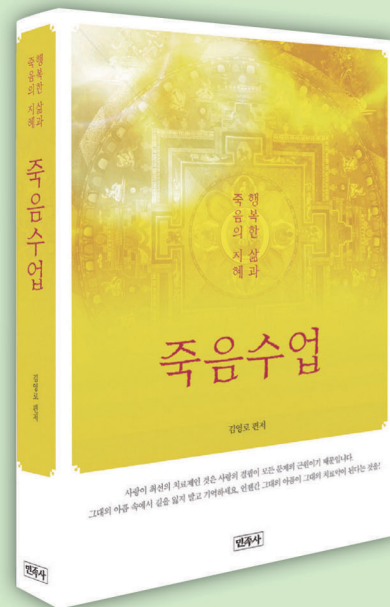
근·현대 중국불교의 가장 뛰어난 스승의 한 분으로 추앙 받는 선화(宣化)상인의 대표적인 염불 법문집. 경전과 다양한 실화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염불 법문의 정수를 꼭 집어 설명한 책.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염불이 삶과 죽음의 고통보다 건넌다는 이치임을 깨닫게 한다. 참되게 염불하면 불보살이 감응하여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피어남을 일깨워 준다.

“그대도 염불하고, 나도 염불하고, 그대나 나 무엇 때문에 염불하는가? 생사를 마치고, 사바를 극락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니 그대도 없고 나도 없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물을 조용히 관하여 모든 것을 깨달으니, 번뇌는 끊어지고 무명은 깨지며, 거대한 사랑의 강물 삼계(三界)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머리말 중에서

행복한 삶과 죽음의 지혜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생이 먼저 올 수도 있음을 아는 눈 밝은 분들... 수행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 가족과 친지, 이웃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분들의 뼈저린 아픔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는 필독서...

죽음수업

■ 김영로 편저 | 변형 신국판 348쪽 | 15,000원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감동과 치유의 책

“필자도 2010년에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때때로 눈물이 나지만 대신에 저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게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귀한 스승님으로 가슴 속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중생들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의 죽음은 저의 아들의 죽음으로, 또한 저 자신의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머리말 중에서